

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(광양시)

□ 민원 제목 : 광양읍 덕례리 동주마을을 주령마을과 동지마을로 분리 요청

□ 신청 원인

- 8차선 도로를 기준으로 생활권이 동지마을과 주령마을로 분리되어 있으나, 행정상 동주마을(동지와 주령을 합쳐 동주)만 존재하여 마을회관 등 주요 공공시설물은 주령마을에 있고, 주민지원 사업들도 주령마을에 편입되어 있음.
- 여름철 무더위 쉼터, 사업 주민설명회 등 공공시설물 이용 및 행정업무 참여시 동지마을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8차선 도로를 지나 마을회관이 있는 주령마을까지 가야하는 등 주령마을의 주민과 차별을 받고 있어 동주마을을 주령마을과 동지마을로 분리 요청

□ 피 신청인 등의 주장

- 주무과 의견
 - 민원 내용 수용 가능 여부 : 가능
 - 「광양시 행정동·리 및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」제3조(설치 기준)에 마을구성의 최소 단위인 “반”의 구성 기준이 20가구로 명시되어 있음.
 - 2025년 7월 기준, 동지마을은 19세대(33명)거주 중으로 마을구성요건 미구비 상태나,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본 마을은 주령마을과 동지마을 사이 물리적 거리(약 1.5km)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이용 불편 및 본 마을로 이동시 8차선 도로 횡단에 따른 사고발생 우려 등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마을 분리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됨.

- 다만, 마을 분리를 위해서는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검토 절차가 필요하며, 최종적으로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행정 처리 기간이 2~3개월 소요됨.
- 2025년 7월, 행정구역 조정을 하고 있으므로 읍·면·동 전수조사를 통해 행정구역 변경 대상지를 일괄 조례 개정 추진코자 함.

□ 사실관계

○ 동지마을과 주령마을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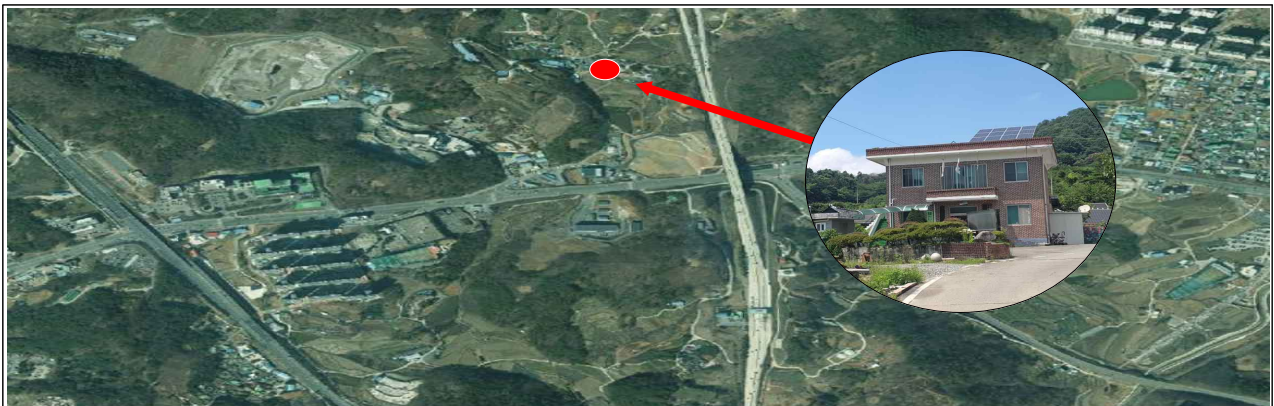
- [그림 1]과 같이 동주마을과 주령마을은 순천과 광양의 경계를 잇는 반송재에 걸쳐있는 마을로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(8차선)을 기준으로 도로 위쪽에는 주령마을이, 아래쪽에는 동주마을이 형성되어 있음.

[그림1]



- 현장 확인 결과, 자연마을은 동지마을과 주령마을 두 곳으로 형성되어 있으나, 현재 행정상 동주마을 이장(오길중)은 주령마을 주민이며, 마을회관은 [그림 2]와 같이 주령마을에만 위치해 있음.

[그림2]



○ 「광양시 행정동·리 및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」제3조 제2호

- 「“통”은 4개~6개 반으로 구성하고, “반”은 20가구~30가구로 구성하되, 마을단위 및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.」라고 명시되어 있음.

구 분	세대수	인구수	비 고
계	66세대	102명	
동지마을	19세대	33명	
주령마을	47세대	69명	

□ 관계법령 등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7조

○ 「광양시 행정동·리 및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□ 판단 및 결론

- 광양읍 덕례리 동지마을과 주령마을은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을 기준으로 마을단위 및 취락형태가 확연히 구분되어 있음. 그러나 행정상 같은 마을임에도 마을회관등과 같은 공공시설물은 주령마을에만 존재하여 동지마을 사람들은 물리적 거리등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.
- 또한, 「광양시 행정동·리 및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」제3조 제2호에는 “마을단위 및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”라고 되어있음에 따라 행정상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신청인의 요청대로 동지마을과 주령마을을 분리하는 것으로 “의견표명” 함.